



날치기 저지못해 무릎꿇고 사죄드립니다
꿇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3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미 FTA 날치기 처리 MB정부 규탄대회'에서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해 무릎을 꿇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FTA 농축산업 직격탄

‘農道 전남’ 최대 피해 대책 급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전남지역 농·축산 부문 피해 현실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업의 위기”=박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없이 FTA 비준안이 처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아 농업이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됐다”면서 “피해

차지사, 농업·농촌 활성화 특별법 제정 촉구

직불금 상향·친환경축산육성기금 조성 건의

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지사는 FTA 대책으로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직불금 상향조정, 친환경축산 육성기금 조성, 국고 포괄보조지원의 시도별 차등 지원,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농촌 경쟁력 확보에 절실하다며 매년 정책 과제들을 발굴, 건의해오고 있다.

박 지사는 “이제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고 이에 맞서 이겨야 한다”면서 “한국농업의 취

약성과 농업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농축산물 수출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도” 전남의 현실=전남도내 인구 191만8000명 중 차지하는 농가 인구(39만6000명) 비율은 20.6%(전국 1위)에 이르고 105만1000t의 식량작물을 생산해 전국 생산량의 19%를 차지하는가 하면, 경제 작물은 229만5000t으로 전국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식량 공급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 농가 중 1억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2014명에 불과하고 수입 2000만원 미만의 빈농도 적지 않다. 비료에 농자재 값은 매

년 오르는데, 쌀 등 농작물 값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꺾은 일꾼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농도(農道) 전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을 내세워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과 달리, 들녘 농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분야의 경우 친환경 축산 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도내 전체 한우 농가(3만3490가구) 중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한우농가는 1539농가에 불과하다.

김지수기자 dok2000@kwangju.co.kr

년 오르는데, 쌀 등 농작물 값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꺾은 일꾼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농도(農道) 전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을 내세워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과 달리, 들녘 농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분야의 경우 친환경 축산 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도내 전체 한우 농가(3만3490가구) 중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한우농가는 1539농가에 불과하다.

김지수기자 dok2000@kwangju.co.kr

J프로젝트 부동산지구 개발 또 악재

KDI 타당성 중간보고서 골프장 조성 원가 등 이견

전남도·시행자 “결과보고 늦춰달라” 문광부에 요청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부동산지구 개발 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 용역이 늦춰지면서 사업 추진이 한층 더뎠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중간 보고 내용이 전남도를 비롯한 사업시행자와 차이를 크게 드러내, 일각에서는 부동산지구 개발의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23일 J프로젝트 내 부동산지구 개발계획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의 결과 보고서 제출 시기를 늦춰달라는 내용의 사업시행자 측 건의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KDI가 지난 10월 8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결과보고서를 자료 보완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엔 시급한 사업 추진이 절실한 전남도 등 사업시행자가 또다시 늦춰달

라고 요구한 것이다.

KDI는 올 초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지구 개발계획의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이며 애초 이날까지 용역 결과보고서를 납품기로 했다.

전남도 등은 KDI의 중간 보고 결과, 핵심 쟁점인 부동산지구내 골프장 조성 원가 및 토지매입비 산출 문제 등에서 이견이 달라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했고 충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만큼 용역 결과 보고서 납품 시기가 촉박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지구 부지 가격이나 골프장 조성비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등 시행자측 입장과 차이가 커 전체적인 사업 경제성 분석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이 지난 2009년 같은 내용의 용역을

실시해 “타당성이 있다”고 했음에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용역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핵심 쟁점인 부동산지구 부지 가격과 골프장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농림부는 3.3㎡당 2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한 땅값이 농림부가 파악한 가격보다 절반 가량 낮아 650억 가량의 개발이익이 기대된다는 애초 사업성 분석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재검증을 주장했고 결국 전남도가 받아들여 KDI가 용역을 진행중이다.

이에따라 올 해 안 부동산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하겠다는 전남도 구상은 물거품이 됐고 그만큼 사업 추진도 더뎠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편, 부동산지구는 14.18km에 테마 박물관·골프장·위터파크·마리나·승마클럽 등이 들어서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와 에이스회원권거래소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김지수기자 dok2000@kwangju.co.kr

F1대회 5년간 총 7700억원 썼다

국비 지원 고작 12.8%뿐

전남도가 F1(포틀러원) 국제자동차 경주장 건설과 2차례 대회에 모두 7700억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F1경주장 건설이 시작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대회 개최까지 소요된 재원은 총 771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F1경주장 건설에 들어간 비용은 4425억원, 2차례 F1대회 개최권료 861억원, 2차례 대회 TV중계권료 307억원, 2차례 대회운영비 396억원, 대회운영법인인 카보 출자금 600억원, 편의시설 설치비용 75억원 등이다.

여기에 경주장 건설 등을 위해 차입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자비용 등에 402억원이 소요됐고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개설 등 기반시설에도 648억원이 투입됐다.

전체 비용 7714억원 중 국비 981억원(12.8%)을 제외한 도비는 2871억원(37.2%), 민자 3862억원(50%)이다. 민자의 경우 대회운영법인인 카보(KAVO) 투자자들이 제외되거나 철수하면서 민자 부분을 전남도가 지방채로 떠안기로 한 만큼 사실상 도

비로 충당하기로 해 F1대회는 재원상 성격이 자치단체 사업으로 바뀌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회를 원활하게 열려면 개최권료와 TV중계권료를

제외하고도 300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한 만큼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수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70531-359호

“우울증”의 한방치료!

누구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와 상실을 경험하게 되며, 그 결과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에 젖게 된다. 여기서 우울이란 슬프고 침울한 마음으로 인하여 모든 생리 기능이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부분은 잠시 시간이 지나면 우울한 기분이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된다. 이처럼 좌절 경험후에 일시적으로 경미한 우울 기분을 느끼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며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항상 우울한 상태에서 쉽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점차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울한 기분이 정제되어 발생하지 못해 일어나는 증상을 총칭하여 우울증이라 합니다. 우울증은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빠져들 수 있는 “인생의 늪”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음의 감기”라고 할 만큼 누구나 인생의 시련기에 경험하게 되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자살과 같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정신장애이기도 합니다.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 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제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울증 원인

- (1) 생물학적 원인 - 유전적, 체질적 원인
- (2) 사회적 원인 - 사회에서의 스트레스
- (3) 정신적 원인
 - ① 사려 과다나 실의, 비탄 등 정신적인 충격이 장기를 쇠약하게 하고, 그로 인해 氣血의 순환이 지체되거나 습열·식담 등이 정체되어 흡수·배설이 원활치 못 한데서 우울증이 생기게 된다.
 - ② 정신적인 요인 중에서도 특히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할 때, 즉 욕구불만이 쌓일 때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소심한 사람이나 내성적인 사람에게 흔히 나타난다고 하겠다.

우울증 증상

1. 계속되는 우울, 불안, 혹은 공허감
2. 절망적인 느낌, 염세적 사고
3. 죄책감, 무가치 혹은 무기력감
4. 성생활을 포함하여 한 때 즐겨했던 일이나 취미 생활에서 의욕 및 흥미상실
5. 불면, 아침에 일찍 깨거나 과다한 수면
6. 식욕 감소나 체중 감소, 과식이나 체중 증가
7. 힘이 없고 피로하며 몸이 처지는 기분
8.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기도
9. 초조감, 쉽게 짜증남
10.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의사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
11. 두통, 소화기 장애 또는 만성 통증 등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계속되는 신체 증상이 있을 때

우울증의 치료

치료원칙은 우울증의 병리기전에 의거하여 울결한 氣를 순조롭게 순환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화·담·적의 경중에 따라서 火를 끌어내린다든지 痰 또는 積을 없앤다든지 하는 방법을 배합한다. 한약처방으로는 소간해울탕, 귀비탕, 은담탕, 보혈안신탕, 조위승청탕, 소요산 등이 많이 활용된다. 침치료는 울체된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경희 한의원) 전 선 형 원장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침구과

진료 안내 **· 화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완비 * 건물 옆 패밀리카터가

화정동 주재(영추선회관) <송정리> <동고개>

경희한의원